



1989 신도불이

우리 땅에서 자란 것들로



농촌과 도시가 함께 자라며

1995 농도불이

2025 농심천심

농업인과 국민이 하나 되도록



**농업의 가치
국민과 같이**

이제 농심천심의 길로 나아갑니다

